

經濟人 手帖



굿은 일과 몹쓸 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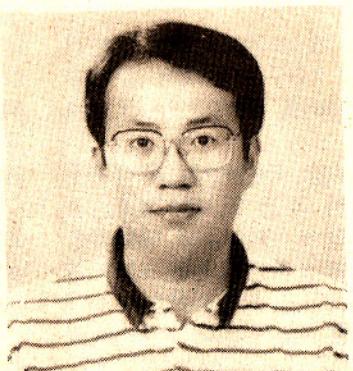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소단락들에서 필자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로중 제일 혼한 경로 6가지를 차례로 소개하였다. 즉, ①부모를 잘타고나기, ②독점권을 차지하기, ③리스크테이킹하기, ④현금력을 동원하기, ⑤근검절약하기, ⑥운좋기가 바로 그 여섯가지이다. 이 소단락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섯가지 다음에 오는 혼한 부자되기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못 할 짓하기”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이던 간에 못 할 짓’ 바로 그것들을 하여 부자가 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차마’ 못하면, ‘더러워서’ 못하면, ‘무서워서’ 못하면, ‘체면때문에’ 못하면, ‘사랑때문에’ 못하면, ‘집 안체통때문에’ 못하면,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할 능력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건간에’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여서 돈을 모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못 할 짓’의 개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못할 짓 하기(?)

김영수 (경제학박사)



념정의를 할 때에 약간은 조심하여야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소단락들에서 소개한 부자되는 경로들에 비하여, 이 ‘못할 짓’이라는 것은 개념정의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소단락을 쓰는 동안 필자는 굉장히 조심이 되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욕만 바가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근검절약에 관해서 쓸 때는 의기 양양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그립다.) 하여간,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부자되는 경로로서의 못 할 짓하기’라는 것은 정의하기조차도 참 아리송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못 할 짓 하기’라는 말

은 말자체가 논리상 모순이다. ‘못할 짓’이면 못하는 것이지, ‘못할 짓’을 하다니, 일단 ‘한다’면 그것은 벌써 ‘못 할 짓’이 아니고 ‘할 짓’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영어로는 Contradiction in terms라고 한다. 또, 거기다가, 철학, 윤리, 종교... 이런 ‘가치판단’에 관한 지식체계들이 얼마나 말들이 많고 사람을 혼동시키는 것들인데, 거기다가 대고, 이런 이런 일은 ‘못할 짓’이고 저런 일은 ‘할 짓’이라고 설불리 ‘가치판단적’인 말을 하였다는, 마치 별통을 쑤시는 것 같아서,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어있다. 원래,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철학이나 윤리 종교나 그런 것들 자꾸 들먹이는 친구들은 시간은 많고 밥벌이는 시원찮은 친구들이 많은 법이다. 그런 친구들 한테는 필자같은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에 무언라 의견을 발표하면, 그 때부터는 할일 없던 이 친구들의 별 볼일 없던 인생들이 갑자기 보람차고 즐거워 진다. ‘반박성명’이 어떻고 ‘공개질의’ 서한’이 어떻고... 와! 정말,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게 될까봐, 필자는 언제나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항목, 즉, ‘부자되는 방법으로서의 못 할 짓’, 바로 이 항목에 와서는 필자가 참으로 난처하여 쪘다. 말싸움 ‘꺼리’를 달라고, 아침저녁으로 알라신에게 佛供을 드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훌륭한 말싸움거리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토픽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모자란 필자가 지고야 할 業報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이왕 말이 내친 김에 계속 논의를 밀고나가 보자. 즉, 지금까지의 ‘부자되는 경로’들을 논할 때에는 순수히 경제학적인 논의와 분석, 즉, ‘가치중립적’인 논의 방법만 가지고도 충분하였지만, 이 항목을 논할 때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다른 것, 즉, ‘가치판단적’인 것도 조금 건드려야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하여 독자들의 양해와 默認을 먼저 얻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마치, 우리끼리만 아는 무슨 커다란 隱謀를 꾸밀 때처럼 말이다.

하여간 ‘못할 짓’처럼 개념정의가曖昧하고 혼동스러울 때에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설명방법이다. 그래서 드는 예인데, 마약의 생산과 거래, 유곽 운영, 도박장 운영, 인신매매, 密酒담그기, 환경오염규정어기기, 포르노 산업... 등이 그 극단적 예이다. 자! 독자들은 이제,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감을 잡았을 것

이고, 왜, 필자가 이 단락을 진행하기 전에 그토록 우물쭈물 서성거렸던 것인가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여간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인데, 필자가 알아보니 이런 일을 하면, 얼마 동안은 얼마간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을 하면 돈을 모으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이 社會라는 것의 有機性 때문이다. 이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묘하고도 복잡한 精物들이 거미줄보다도 수십억배로 복잡하게 얹히고 설켜있는 그러한 심각한 有機的構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高度의 複雜 有機體의 内部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還元性 때문에, 일부의構成員이 形而上學적 차원에서 사회현상에 어떤 方向性을 賦與하고자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방향성이 여간해서는 實體化하지 않는 법이다. 어! 이거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방금한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 즉, 아무리 정책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자기 수양이 어떻고 하여도, 賽春이나 도박 마약흡입 같은 것들을 사회에서 확실하게 주방하기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즉, 이렇게 이야기할 걸!) 그 이유는 바로 그 행위들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대표 682-8686-

<다음호에 계속>